

‘부안 양잠 농업’ 국가중요농업 유산 지정

유유동 뽕나무 재배·누에 사육 전통 시스템 계승·발전
농림부 보전 필요성 인정…郡, 관광·산업 활성화 나서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이 국가중요농업 유산으로 지정됐다. 부안군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부안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8호로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을 지정했다.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은 뽕나무 재배에서 누에를 사육하기까지 일괄 시스템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지역으로, 경지면적의 41.4%(24ha), 농가 수의 80%(40가구)가 양잠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대한잠사회가 지난 2004년 ‘대한민국 청정지역’으로 지정했고 국립공원지역 장두봉 주변에는 야생 산뽕나무와 꾸지뽕 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등 양잠농업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점도 지정에 한몫을 했다.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남행월일기·1201년)에 잠충곡, 조선시대 신증동국여

지승람(1530년), 대동지지(1861년)에 부안현 토산품 ‘뽕’으로 기록되는 등 역사성도 갖췄다.

일대 주민들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 자치적으로 참봉축제를 매년 개최하는가 하면, 축제 전 누에를 위한 위령제인 ‘잠령제’도 지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과학적 산물인 전통 잠실이 보전 관리되고 있으며 친환경적 뽕나무 재배 및 생물 다양성, 주변 산림과 뽕나무밭이 조화된 우수한 경관 등에서 소멸해 가는 양잠 농업의 보전 필요성이 높게 평가됐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부안군의 활성화 노력도 도움이 됐다.

부안군은 지난 2006년 유유동 일원을 청정누에타운 특구로 지정하고 부안누에타운과 참봉연구소를 건립하는 한편,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잠사곤충시험소를 유지하는 등 양잠산업 활성화에 공을 들였다.



부안 유유동 뽕나무 밭에서 농민들이 뽕잎 따기 작업을 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농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산자원의 조사 및 복원, 주변 환경정비, 관광자원 활용 등에 필요한 예산(3년간 15억 원, 총사업비 기준)을 지원받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계기로 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 양잠농업의 활성화와 양잠농업 유산 전통을 계승, 발전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부안 군민 대중교통 편하게 이용하세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버스 승강장 바람막 설치 등

부안 지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나아졌다.

우선, 새해들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농어촌버스(37대 61개 노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서 일반인은 1000원, 초·중·고교생은 10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할인(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은 50원으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본요금

1400원(성인 기준)에 버스를 타고 부안읍에서 모항까지는 최고 4900원을 내야했다. 좌석버스형 농어촌버스도 이번 단일요금제 적용을 받는다.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부스<사진>도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이용객이 많은 부안을 농어촌버스 정류소 2개소와 부안상설시장 승강장 1개소, 서부 승강장 1개소 등 4곳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악·부안=김민준기자 jun@

고창군 ‘서울·전주장학숙’
입학생 165명 모집

고창군 등이 운영중인 서울과 전주 장학숙 입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65명(서울장학숙 60명, 전주장학숙 105명)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고창군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입사 신청자를 받는다. 입학생은 오는 2월 14일 발표한다. 서울·경기 지역과 전북 도내 대학 신입생·재학생으로 보호자나 학생의 주민등록이 지난해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월 사용료는 서울 15만원, 전주 13만원이다.

/고창=박형진기자 phi@

백제 고분 밀집한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 사적 된다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史蹟)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백제 황형식 석실분(橫穴式 石室墳·굴식돌방 무덤)이 모여 있는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정읍 영일면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13년 이뤄진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반경 2km 구역에서 백제 고분 275기가 확인됐다. 전

북에서는 최대 규모의 백제 고분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황형식 석실분이 밀집돼 있어 이 일대 백제 지방통치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구역에는 황형식 석실분 56기가 분포한다. 대부분은 백제가 부여에 도읍을 두었던 사비기(538~660)에 제작됐지만, 일부는 공주가 수도였던 웅진기(475~538)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안군은 인근에 위치한 고사부리성(사적 제494호)과 마한계 분구묘(墳丘墓·흙이나 돌로 봉분을 쌓은 뒤 매장시설을 만든 무덤) 등과 연계해 분석하면 백제의 중앙과 지방, 대외관계, 정치세력 변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한방진료, 집에서 받으세요”

순창군, 가정방문 진료

순창군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방문 한의약 진료에 나섰다.

순창군은 4일 순창읍에 거주하는 어르신 7명을 찾아 재택 진료를 펼친 데 이어 지역 등록자 9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진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진료진은 한의사 6명과 전담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진료는 매월 2회 홀몸노인, 의료취약계층, 소외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검사와 침·뜸·투약 등 한의약 서비스는 물론 보건교육,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내원하기 힘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익산3산단, 대성메디칼 등 4개 업체 투자협약

익산시는 4일 대성메디칼, 디에스티홀릭, 비앤디네트웍스, 신안창호산업과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투자협약(사진)을 했다.

국내 최초로 알콜섬을 개발한 대성메디칼은 의약품 제조설비와 목화재배 연구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디에스티홀릭은 LED조명, 생활조명, 공장조명 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비앤디네트웍스는 광치료 연구제 및

치로기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들 업체가 총 80여억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100여개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말 인구가 30만 187명으로 ‘30만’ 유지에 성공한 데 따라 올해도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제3, 4 산업단지 투자유치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익산=유정영기자 yij@kwangju.co.kr

남원시, 보훈수당 인상·지원 대상자 확대

남원시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유족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가운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환자, 상이군경, 전몰·순직 군경의 미망인이나 유자녀만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15만원의 사망위로금과 5만원의 생일축하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남원시는 이번 방침에 따라 580여명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보훈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장세선 고흥군의원, 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 상임위원에

고흥군의회 장세선(사진)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 개헌 통한 분권국가 명문화, 지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와 토론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맡고 있다.

장 상임위원은 제7대 고흥군의회의



장을 역임했으며,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고흥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장 상임위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분권과 자치조작권을 강화해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며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작중기자 gj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루브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두암동 2층 남향주택 대지 248㎡ 건물 154㎡ 사할도 적합 3억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향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북향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임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항 산 75780㎡ 4억2천
-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1층 가게, 2층 투룸, 3층 안집, 은행 1억5천 생활편리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물 1164㎡ 12억8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물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원 13억2천
- 월산동 바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물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마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매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담보용 남구 송하동산 22556㎡ 감정 2억4700 매도 1억2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은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감정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팻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토지구합

1. 화순군 도곡면 원하리 도곡온천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2. 화순읍 신기리 만연사 가는길 또는 화순읍 유천리 전대병원 가는길 좌 우측 도로변 토지
약 2,000㎡ 내외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진구 하남산단9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아트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